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12 pp. 7231-7238, 2014

http://dx.doi.org/10.5762/KAIS.2014.15.12.7231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일부 치위생과 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간의 관련성

정은경[1*]
[1]울산과학대학교 치위생과

Effect of self-efficacy in dental hygiene students on the career maturity level

Eun-Kyung Jung[1*]
[1]**Dept. of Dental Hygiene, Ulsan College**

요 약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고, 그 세부요인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부산, 대구지역의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중 43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제난이도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성, 진로독립성, 진로확신성, 진로준비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조절 자기효능감은 진로독립성, 진로확신성, 진로준비성, 진로목적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치위생과 학생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태도성숙 주요변인은 진로독립성, 진로준비성, 진로확신성이었고, 총 설명력은 28%였다. 따라서,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해서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진로태도를 성숙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self-efficacy on career maturity in dental hygiene students, and whether there were differences in self-efficacy according to the existence or not regarding the certificate of qualifications, participating experience in vocational training competition and award one in the competition. The data was collected from a 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 on dental hygiene students. The 435 students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The data was analyzed by descriptive analysis,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task difficulty self-efficacy as a career decision, career independence, career certainty, and career preparation had a positive impact. Second, the self-regulation self-efficacy as a career independence, career confidence, career preparation, and career objectives had a positive impact. Third, the main career attitude and maturity factors affecting the efficacy of dental hygiene students was a career student independence, career preparation, and career certainty. The total explanatory power was 28%.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comprehensive implications were suggested to improve the career maturity and enhance the adjustment to college.

Key Words : Career maturity, Dental hygiene students, Dental hygienist, Self efficacy

1. 서론

대학생활은 향후 직업생활로의 이행을 앞두고 있어 진로결정과 진로준비행동의 측면에서 중요한 시기이다. 즉, 졸업 후 다양한 직업 세계로의 진출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자신의 진로와 직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자아개념의 발달이 요구되는 시기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1]. 실제로도 대학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정서, 사회적 관계, 학업, 진로 등 다양한 고민을 토로하고 있고[2], 직업세계가 다양화되고 있는 반면에 취업난은 극심한 요

본 논문은 울산과학대학교 2014년 교내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Eun-Kyung Jung(Ulsan College.)
Tel: +82-52-230-0798 email: ekjung@uc.ac.kr
Received September 18, 2014 Revised (1st November 11, 2014, 2nd December 1, 2014) Accepted December 11, 2014

즘, 대학생에게 진로나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자 심한스트레스이다[1].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과 질은 완전히 달라지므로 올바른 진로 선택이야말로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진로태도성숙란 동일 연령층과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직업준비의 정도로 개념화 할 수 있는데,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변인들로는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등으로 알려져 있다[3]. 특히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인임을 밝히고 있다[4-6].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개인이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할 때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다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인 동시에 신념으로 설명된다[7]. 또한 어떤 특정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개인이 얼마나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개념이며, 개인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조절하고 대처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정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8]. 정 등[9]은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동기와 자원 및 동절차를 얼마나 잘 활용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신의 판단 또는 신념을 말한다.”고 하였으며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이 없을수록 어려운 환경에서 포기를 쉽게 하며 이와 반대로 특정 과제에서 자기 효능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 과제에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그러한 행동을 지속하는 시간도 길다고 하였다.

치위생과 학생들은 특히, 많은 양의 이론과 실습수업 및 임상실습으로 인해 심리적인 압박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국가고시를 통해 치과위생사 면허증을 취득해야만 하는 시험에 대한 불안과 친구들간의 경쟁으로 인한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정신건강에 소홀하기 쉽다. 또한 치위생은 지식과 기술, 인격을 토대로 환자에 대한 봉사와 서비스 정신과 더불어 환자의 개성과 취향에 맞는 응대를 통해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숙련과정에 있어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특정 일이나 특정시간대에 환자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직무특성으로 인해 치위생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은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많은 갈등을 겪기도 한다. 이로 인해 졸업 후 전공과는 무관한 다른 직업을 찾는 사례까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미래의 치과위생사로 생활하게 될 치위생과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이 등[10]은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고, 최 등[11]은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미래의 치과위생사로 근무하게 될 치위생과 학생들에게는 인내심과 함께 높은 자기효능감이 요구되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치위생 전공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은 진로태도성숙에 관련된 중요한 변인임을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여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고취 프로그램 개발과 진로지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부산, 대구지역의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편의적 표집방법에 의하여 표본을 추출한 후 480부의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부하여 452부(94%)를 회수하였다. 그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435부(91%)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의 학년별 분포는 1학년 171명(39.31%), 2학년 148명(34.02%), 3학년 116명(26.67%)이었다.

2.2 연구 내용 및 통계방법

2.2.1 자기효능감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한 측정도구는 김[12]이 제작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각 하위영역은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의 2개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총 17문항이다. 5점 Likert척도로 이루어졌으며, 부정적 진술은 역 채점하였다. 자기효능감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732로 나타났고, 각 하위요인 신뢰도 계수는 자기조절 효능감(12문항) .867, 과제난이도(5문항) .759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주성분분석과 직각회전을 활용하여 타당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적재치와 상관계수 값이 낮은 문항을 제외하고 수정하여 자기조절 효능감 6문항과 과제난이도 5문항으로 총 11문항을 구성하였다.

2.2.2 진로태도 성숙

사람들이 어떻게 직업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적응해 나가는지에 대한 개념적 문제들은 매우 중요하다. 진로결정이론은 진로결정 과정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보다 효율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발달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이와 이[7]가 사용한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5점 Likert척도로 이루어졌으며, 부정적 진술은 역 채점하였다. 진로태도성숙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794로 나타났고, 각 하위요인 신뢰도 계수는 결정성 .786, 독립성 .816, 확신성 .737, 준비성 717, 목적성 707로 나타났다. 주성분분석과 직각회전을 활용하여 타당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적재치와 상관계수 값이 낮은 문항을 제외하고 수정한 결과 각 하위요인은 결정성, 독립성, 확신성, 준비성, 목적성의 5개 하위요인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2.3 통계분석

본 연구의 통계분석을 위하여 PASW Statistics 18.0을 사용하였다. 먼저 관련된 변수를 축소, 단순화하여 의미있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방법으로는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였으며, 고유값이 1이상이고, 요인적재치가 0.4이상이며, 타성분에서 0.4이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인구통계적 특성에 대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의 각 하위요인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태도성숙변인의 검증을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평가

신뢰성은 측정도구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대상에 대해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일관성을 나타내는 가를 판단하는 개념이다. 다 항목 척도에 대한 신뢰성평가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개의 항목을 이용하는 경우 신뢰도를 저해하는 항목을 찾아내어 측정도구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높이는 내적 일관성 분석방법인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다. Cronbach's α 계수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흔히 Cronbach's α 계수가 0.6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상기측정에서 보듯이 자기효능감에 대한 모든 변수들의 값이 0.6이상으로, 변수의 내적일관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기효능감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측정변수의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서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적재치를 단순화하기 위해 직각회전방식을 채택하였다. 고유 값이 1이상이고, 요인적재치가 0.4이상인 요인으로 구성하여 자기효능감은 2개의 요인으로 묶여졌으며, 각 요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중심적인 개념에 따라 자기조절 자기효능

[Table 1] Validity and reliability of self-efficacy

Factor	category	AVE
Self-regulation	I can perform as planned.	.77
	I can achieve if you set your important goals.	.71
	Even if you do something wrong the first time I played it until.	.70
	Failure is only made to me to try harder.	.61
	I am confident.	.54
	I must finish it when you do something that is not much fun.	.54
	Eigen value: 2.73 R^2: 24.86 Cronbach's α: .75	
Task difficulty	If you do not seem to succeed the first time you try to learn something new and give up immediately.	.76
	I even try not getting too complicated, try you see what happens.	.75
	What if I do not want to learn new things too difficult.	.73
	I gave up before the end of any day you finish well.	.70
	I have to work hard to avoid bumping into things.	.54
	Eigen value: 2.64 R^2: 48.87 Cronbach's α: .76	

[Table 2] Validity and reliability of career maturity

Factor	category	AVE
Decision	The state put to a definitive decision about my career.	.90
	I have already decided in the course does not bother to select a career.	.88
	I have already decided what to do with the future.	.85
	It is difficult to decide what course to be selected.	.81
	Eigen value: 3.08 R^2: 30.32 Cronbach's α: .89	
Independence	Should choose a career as conviction to live their lives.	.86
	I would choose the job as I specified criteria.	.79
	You will need to choose the one you want to say who he may be.	.78
	Eigen value: 2.32 R^2: 46.13 Cronbach's α: .82	
Confidence	I succeed in their chosen career field is.	.83
	Well as those I have myself to working in your chosen career.	.82
	This can be recognized by their bosses	.74
	Eigen value: 2.25 R^2: 56.79 Cronbach's α: .80	
Preparation	The aggressive about getting the career I plan information.	.73
	Imagine for a future career is still attending the school.	.72
	I am very interested as to whether any promising future career.	.70
	Listen with interest to stories of successful people in the job I want.	.70
	Eigen value: 2.24 R^2: 64.51 Cronbach's α: .73	
Objectives	Consider first the nature of the work and promotion opportunities when choosing a career.	.85
	When choosing a professional to see if you can get ahead in the profession consider first.	.84
	Eigen value: 1.60 R^2: 71.87 Cronbach's α: .66	

[Table 3]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Variables	1	2	3	4	5	6	7
1. Self-regulation self-efficacy	1						
2. Task difficulty self-efficacy	.519**	1					
3. Career decision	.114*	.151**	1				
4. Career independence	.322**	.328**	.247**	1			
5. Career confidence	.490**	.338**	.248**	.569**	1		
6. Career preparation	.333**	.325**	.186**	.529**	.531**	1	
7. Career objectives	.264**	.201**	.047	.235**	.178**	.091	1

** : The correlation coefficient wa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 : The correlation coefficient wa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감, 과제난이도 자기효능감으로 명명되었다. 또한 표준적합도를 나타내는 KMO값은 0.793으로 0.6보다 크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의 유의확률이 0.000으로 0.05보다 작게 나와 통상적인 기준을 통과하였다. 이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자기효능감에 대한 요인분석이 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진로태도성숙의 Cronbach's α 계수는 다섯 개의 세부요인 모두 0.6이상이었고, 고유 값이 1이상이고, 요인적재치가 0.4이상인 요인으로 구성한 진로태도성숙은 5개의 요인으로 묶여졌으며, 각 요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중심적인 개념에 따라 진로결정성, 진로독립성, 진로확신성, 진로준비성, 진로목적성으로 명명되었다. 또한 표준적합도를 나타내는 KMO값은 0.782으로 0.6보다 크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의 유의확률이 0.000으로 0.05보다 작게 나와 통상적인 기준을 통과하였다. 이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요인분석이 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3.2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각 세부요인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진로확신성과의 관계가 가장 높았으며(r=.490, p<.01), 가장 낮은 상관관계에 있는 변인은 자기조절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성으로 나타났다(r=.114, p<.05). 사

회적 자기효능감은 진로독립성, 진로확신성 그리고 진로준비성과의 관계가 각각 .328, .338, .325로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성과의 관계가 .151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3.3 자기효능감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3.3.1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치위생과 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R^2=.234 F=48.064, p<.05), Durbin-Watson은 1.913으로, 그 수치가 2에 가깝고 0또는 4와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들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었다. 세부적 요인별로는 과제난이도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성에 정(+)적 영향(β=.125,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2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치위생과 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진로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효능감은 진로독립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R^2=.345 F=75.535, p=000), Durbin-Watson은 1.953으로, 그 수치가 2에 가깝고 0또는 4와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들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었다. 세부적 요인별로는 자기조절 자기효능감(β=.207, p=000)과 과제난이도 자기효능감(β=.220, p=000) 모두 진로독립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3 자기효능감이 진로확신성에 미치는 영향

치위생과 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진로확신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효능감은 진로확신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R^2=.266 F=59.145, p=000), Durbin-Watson은 1.835로, 그 수치가 2에 가깝고 0또는 4와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들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었다. 세부적 요인별로는 자기조절 자기효능감(β=.431, p=000)과 과제난이도 자기효능감(β=.115, p<.05) 모두 진로확신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Self-efficacy factors affected career decision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β	t	p	VIF
		B	S.E				
Career decision	(Constant)	2.331	.231		10.069	.000	
	Self-regulation	.068	.081	.049	.844	.399	1.369
	Task difficulty	.170	.079	.125	2.165	.031	1.345
	R^2: .234 F: 48.064 p: .000 Durbin-Watson: 1.913						

[Table 5] Self-efficacy factors affected career independence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β	t	p	VIF
		B	S.E				
Career independence	(Constant)	2.712	.174		12.473	.000	
	Self-regulation	.231	.061	.207	3.808	.000	1.369
	Task difficulty	.239	.059	.220	4.042	.000	1.345
	R^2: .345 F: 75.535 p: .000 Durbin-Watson: 1.953						

[Table 6] Self-efficacy factors affected career confidence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β	t	p	VIF
		B	S.E				
Career confidence	(Constant)	1.688	.159		10.634	.000	
	Self-regulation	.469	.055	.431	8.479	.000	1.369
	Task difficulty	.122	.054	.115	2.260	.024	1.345
	R^2: .266 F: 59.145 p: .000 Durbin-Watson: 1.835						

3.3.4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성에 미치는 영향

치위생과 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R^2=.332 F=66.342, p=000), Durbin-Watson은 1.759로, 그 수치가 2에 가깝고 0또는 4와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들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었다. 세부적 요인별로는 자기조절 자기효능감(β=.225, p=000)과 과제난이도 자기효능감(β=.208, p=000) 모두 진로준비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5 자기효능감이 진로목적성에 미치는 영향

치위생과 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진로목적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효능감은 진로목적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R^2=.138 F=33.091, p=000), Durbin-Watson은 2.064로, 그 수치가 2에 가깝고 0또는 4와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들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었다. 세부적 요인별로는 자기조절 자기효능감(β=.219, p=000)만이 진로목적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6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태도성숙 변인검증을 위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치위생과 학생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태도성숙 변인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은 진로독립성, 진로준비성, 진로확신성이었고, 세 변수의 총 설명력은 28%였다. 이중 진로독립성은 24%, 진로준비성은 27%, 진로확신성은 28%의 설명력을 보였다.

4. 총괄 및 고안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의 요인분석을 통해 관련된 변수를 축소, 단순화하여 각 세부 하위요인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고, 각 세부 하위요인별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Table 7] Self-efficacy factors affected Career preparation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β	t	p	VIF
		B	S.E				
Career preparation	(Constant)	2.248	.161		13.937	.000	
	Self-regulation	.233	.056	.225	4.152	.000	1.369
	Task difficulty	.209	.055	.208	3.823	.000	1.345
	R^2: .332 F: 66.342	p: .000	Durbin-Watson: 1.759				

[Table 8] Self-efficacy factors affected career objectives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β	t	p	VIF
		B	S.E				
Career objectives	(Constant)	2.153	.211		10.215	.000	
	Self-regulation	.286	.073	.219	3.890	.000	1.369
	Task difficulty	.110	.072	.087	1.538	.125	1.345
	R^2: .138 F: 33.091	p: .000	Durbin-Watson: 2.064				

[Table 9]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on self efficacy

Dependent variables	B	S.E	β	t	p	F	R^2
Career independence	2.52	.030	.65	9.15	.000	83.75	.24
Career preparation	.52	.020	.24	3.57	.000	52.47	.27
Career confidence	2.46	.031	.13	2.82	.001	37.19	.28

치위생과 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효능감 요인 중 과제난이도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음만 먹으면 어떤 과제라도 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진 학생일수록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빠른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 등[13]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의 결정성 차원을 설명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자기효능감이 진로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효능감 요인 중 자기조절과 과제난이도 모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즉,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를 잘 조절하는 학생일수록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의지하기 보다는 자신의 계획대로 진로를 결정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하겠다는 독립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기효능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선택에서 독립적임을 주장한 강[1]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진로확신성에 미치는 영향도 마찬가지로 자기조절과 과제난이도 모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어떠한 과제라도 잘 처리한 자신이 있고 훌륭한 치과위생사가 될 거라고 믿는 학생일수록 스스로 선택한 직업에서 성공할 자신이 있고 노력만 하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자신의 확신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보고한 이와 이[7]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치위생과 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자기조절 자기효능감과 과제난이도 자기효능감 모두 진로준비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떤 과목이던지 다른 사람만큼 잘할 자신이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는 학생일수록 자신이 계획한 진로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는 등 준비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과 준비성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이와 강[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이 진로목적성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조절 자기효능감만이 진로목적성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해도 잘 대처하며 어떤 일을 할 때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융통성 있게 조절하는 학생일수록 진로에 대한 목적성이 뚜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선택시 욕구와 현실을 잘 타협하고 조화시키며 보다 더 성숙한 현실감각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한 손과 강[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치위생과 학생들의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능감은 중요하다. 즉, 치위생과 학생 스스로 역량의 한계성을 극복해 가는 다양한 프로젝트나 과제에 도전하는 경험과 역량의 한계성을 극복해가는 시행착오의 포트폴리오를 대학생활 내내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진로태도성숙 포트폴리오는 대학생활에 있어 개인적 목표들을 학년별로 상세하게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 성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학생상담센터와 취업관련부서의 활동을 확대·심화 또는 진로지도와 관련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역량강화와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통찰, 시대적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과정 마련, 사회가치를 교육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대학이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다양한 투자는 결국 대학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사회의 중요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여 대학의 역량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은 우선 연구대상자 선정 시 무작위 표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울산, 대구의 일부 치위생과 학생으로 제한하여 연구결과를 전체 대학생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간의 관련성 외에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므로 이러한 변인들은 모두 포괄하지 못한 제한점을 갖는다. 본 연구를 통해 치위생과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자기조절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활동, 현장 실습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적용할 때 학생들의 진로태도성숙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고, 그 세부요인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부산, 대구지역의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중 43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가 모두 0.6이상으로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2. 과제난이도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성, 진로독립성, 진로확신성, 진로준비성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 자기조절 자기효능감은 진로독립성, 진로확신성, 진로준비성, 진로목적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치위생과 학생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태도성숙 주요변인은 진로독립성, 진로준비성, 진로확신성이었고, 총 설명력은 28%였다.

Reference

[1] Kang, S. H., "The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Career Decision 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f Engineering College Students to the Career Decision Level."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29, No.3, p. 291-307, 2010.

[2] Kim, K. W., Cho, Y. H., "Mediation and Moderation Effects of Self-Efficacy Between Career 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among Freshme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8, No.4, p. 197-218, 2011.

[3] Chites, J.O., Career counseling : models, methods and materials, p.59-80, New York : McGraw-Hill, 1981.

[4] Park, J.-H., Kim, Y. T., "Study on the impact of career decision Daegu students are career maturity career decision types.", Korea Research Policy, Vol.9, No.3, p. 59-80, 2009.

[5] Lee, Y. K., Kang, K. H., "The Analysis About Employment Stress and Career Decision Efficacy of Undergraduates -In Focus of Engineering and Social Science Colleges.",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Vol.14, No.2, p. 60-67, 2011.

[6] Choi, E-Y., "A Typology of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 and The Effectiveness of Career Efficacy Enhancement Program.", The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 1-176, 2011.

[7] Lee, K. H., Lee, H. J., "The Effects of Career Self Efficacy in Predicting the Level of Career Attitude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Vol.12, No.1, p. 127-136, 2000.

[8] Shon, J. H., Kang, B. N.,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Vocational Maturity of College Woman Major in Dance.", The Korean Journal of Dance Vol.49, p 227-239, 2006.

[9] Chung, A. K., Kim, J. S., Kim, J. H., "The Effects of Self-Respect,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on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and Learning Persistence.",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Vol.16, No.6, p. 11-18, 2013.

[10] Lee, S. Y., Lee, M. J., Kwon, S. H., "Self-efficacy and stress coping method of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in some area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14, No.1, p. 67-7, 2014.

[11] Choi, M. S,. Jang, Y. H,. Yun, H. K., "Effect of self-resilience and self-efficiency on the satisfaction with major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14, No.2, p. 155-162, 2014.

[12] Kim, A.Y., "A study on the academic failure-tolerance and its correlate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11, No.2, p. 1-19, 1997.

[13] Choi, H. S., Lee, Y. S., Cheol, H. J., "A study on the impact of stress on self-confidence in job-seeking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22, No.2 p. 313-322, 2011.

정 은 경(Eun-Kyung Jung) **[정회원]**

- 2006년 3월 ~ 현재 : 울산과학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치위생학, 보건학